

광주 첫 소방출동 방해차 강제처분 훈련

광주소방, 모의차량까지 동원해 실전처럼 훈련

“훈련 계기로 강제처분 강화할 것…시민협조 절실”

“이제부터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 강제 처분을 할 겁니다.”

2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골목. 교회 건물에서 회부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차와 현장지휘자가 경광등을 켜 채 급히 달려왔다.

소방차 등 출동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 왼쪽 6m 남짓 폭 골목 안에 위치한 교회까지 진입해야 했으나 불법 주차한 SUV 차량에 가로막혔다.

지휘차량은 간신히 골목을 지나 교회 앞까지 도착했지만, 폭이 넓은 소

방차는 골목에 들어서지 못했다. 하차한 대원들이 차량 앞 유리창에 차주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은 고민할 틈 없이 강제 처분 통보 서류를 SUV 앞유리창에 붙인 뒤 소방차에 올라탔다. 소방차는 SUV 조수석 측면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면서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 같은 훈련을 펼쳤다. 훈련에 동원한 모의 차량(SUV)을 직접 밀고 부

수면서 실전을 방불케했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유리창 파괴 등 훈련도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었다.

대원들은 구조 공작 차량을 이용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제 견인해보거나 공구로 유리창을 직접 부수고 소화용수관을 연결하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훈련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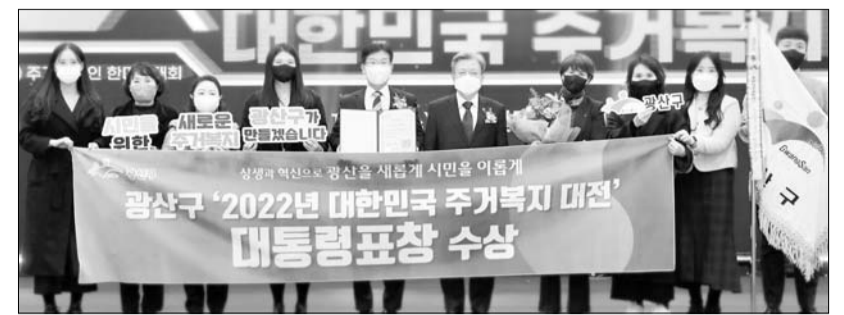
이 같은 개정법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서울 강동소방서 1건으로 유일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화재 현장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처분 전 차주 등에게 연락한 뒤 조치가 어렵다 고 판단될 때 강제처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일상 기자

광산구, 주거복지 대전 대통령 표창

징검다리하우스·늘행복프로젝트 등 민·관 주거복지 선도



광산구가 선제적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통합돌봄 모델 실현의 성과로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이날 대전에서 광산구는 타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모형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의 상인 대통령 표창 기관에 선정됐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한 ‘늘행복프로젝트’, 주거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 등이 큰 주목을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모든 복지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광산구는 유관기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발 먼저 빠르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광산 시민 전체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광주경찰청 직무만족도 전국 최상위...시민만족은 하위권

광주경찰 직무만족도 2위...지방청만 놓고보면 전국 최고

광주경찰청이 올해 전국 경찰관 직무만족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시민 만족도는 하위권에 그쳤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85.7점을 기록해 대전청(88.5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인사·성과관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 분위기, 직무, 교육 등 7개 분야에 대한 경찰관의 만족도를 설문한 것이

다. 특히 일선 5개 경찰서를 제외하고 광주경찰청만 놓고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일선서 중에는 서부경찰서가 전국 258개 경찰서 중 13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광주경찰청 직무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56.5%로 전국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아 의미를 더했다.

광주경찰은 ▲‘김밥데이’ 등 진솔한 소통 ▲식당·카페 등 근무 환경

개선 ▲충훈환·역사관 조성 ▲공감받는 인사 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내부 만족도에 비해 외부(시민) 만족도는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종합체감안전도에서 광주경찰청은 76.4점을 기록, 전국 평균 78.8점을 밑돌았다.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6위로 지난해 14위에서 두 단계 하락했다.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 절차·응대 태도 등을 평가하는 치안고객만족도 역시 12위에 그쳤다.

/조일상 기자

‘2022년 청소년 정책평가’

북구,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북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청소년 정책평가’에서 광주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형성·집행·성과 등 3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북구는 ▲청소년 참여·권리 증진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영역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지원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성취 동기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장학금 지원, 학업 복귀·사회진입을 위한 성취포상금 지원사업 등은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꿈나루 가족 과학골든벨, 찾아가는 동네 과학 교실 등 4차 산업을 소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북구는 여성가족부 ‘202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수행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청소년 실태조사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서비스 등을 펼치고 있다.

/주성조 기자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과보고회

사업단 선정서 지원센터 개소까지...의미 있는 발자취

광주시교육청이 21일 광주시청과 유관기관·지역대학·직업계가 함께하는 지역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과보고회를 성료했다.

21일 시교육청에 이번호에 실시한 ‘2022년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제2차 협력위원회’를 통해 ‘2022년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주요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맞춤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과 협력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오는 2025년 2월까지 진행한다.

3년 동안의 교육부 지원 이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환식 부교육감, 문영훈 행정부시장,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등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2월 사업단에 선정된 이후 7월 시교육청-시청-지역대학-직업계고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역 기업인 광주그림카진흥원, 에너지벨리기업개발원과 손을 잡아 교육과정 운영 협조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다. 지난 10월에는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내년 1월경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시교육청과 시는 교육부 지원 예산 10억 이외에도 오는 2023~2024년 해마다 시교육청 예산 10억, 시보조금 5억을 대응투자한다. 이를 통해 빛고를 새내기 기술인재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꿀잼도시 동구’ 전년비 관광객 132% 늘어

4천여 명 방문...‘전담 여행사·관광 SNS 서포터즈’ 시상



광주 동구는 지난 20일 올 한 해 동안 동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전담 여행사’와 ‘관광 SNS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동구 관광 홍보마케팅 우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동구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경쟁력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에 힘써 전담 여행사 28개소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광 활성

화에 나섰다. 그 결과 전년(1714명) 대비 132% 늘어난 4천여 명이 동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 여행사의 관광상품을 통해 동구를 방문한 도시·도 유료 관광객들로, 체류 기간 동안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재방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구는 이번 성과를 격려하고자 전담 여행사 28개소 가운데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한 10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서울 소재의 ‘여행스케치 여행사’에 대상인 광주 동구청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모집·선발한 관광 SNS 서포터즈 인플루언서 25명을 대상으로 우수활동가 3명을 선정·시상했다.

/김도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